

지방교회의 신앙과 생활

서언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지방 교회(local church, 행 8:1, 13:1, 20:17, 고전 1:2, 계 1:11, 2:1, 8, 12, 3:1, 7, 14, 행 15:41, 고전 16:1, 갈 1:2, 고전 16:19, 고후 8:1)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교회란 한 도시에 한 교회가 나타난 것을 의미하며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나타남을 말합니다. 최초의 지방적인 교회는 예루살렘교회이며, 예루살렘 안에는 사도, 장로, 집사, 오순절, 방언, 침례, 복음전파, 떡 떼는 모임, 병 고침 등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한 도시, 즉 한 지방에서 한 교회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체험함, 거듭남, 변화, 생명 안에서의 성장, 교회, 왕국, 삼일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 사람의 영을 포함하여, 다양하고도 중요한 성경 주제에 관하여 활용 가능한 많은 다른 출판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려는 진지한 갈망으로부터 나온 모든 문의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에 대하여 절대적이며, 가장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분 자신에 대한 살아 있는 지식으로 인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됨의 간증을 나타내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교파로 통합하지 않고, 다만 피로 씻음 받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리스도인들로서 각 지방에서 함께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참된 믿는이들을 환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 그들과의 교통을 추구합니다. 이 땅 위의 주님의 간증이 확대되고, 그분의 신부가 그분의 곧 다시 오심을 위해 예비되도록 그 간증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우리의 참되고도 간절한 갈망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이 땅 위의 그분 자신의 사역을 존귀하게 하고 옹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1.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여진, 완전하고 신성한 계시인 것을 믿는다(딤후 3:16, 벰후 1:20-21, 요 5:39, 계 22:18-19).
2.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삼일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동등하게 존재하는 분이심을 믿는다(딤후 1:17, 엠 4:6, 마 28:19, 고후 13:13, 사 9:6, 요 14:10, 11, 16, 17, 20, 히 9:14).
3.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속주와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성육신되셨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는다(마 1:16, 18, 21, 23).
4. 우리는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삼십 삼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셨음을 믿는다(4복음서).
5.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마 1:16, 마 3:16-17),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다(롬 3:23-25).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부활 하였고, 부활하여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심을 믿는다(벧전 3:18, 1:3, 고전 15:45).
7. 우리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유의 주로 삼으셨음을 믿는다(엡 4:8, 2:6, 행 1:1-12, 2:33, 36).
8.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그분의 택하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몸 안으로 침례받게 하셨음을 믿으며(행 2:1-4, 고전 12:13),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운행하시면서 죄인들을 회개케하고(요 16:7-13),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거둬나게 하며(요 3:3-6), 그리스도의 지체들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자라게 하고(빌 1:21, 엡 4:13-16), 그분의 충만한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을 믿는다(엡 1:21).
9.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체들을 맞이하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얻으시며,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살전 4:16, 17, 마 25:31, 32, 계 19장, 20장).
10. 우리는 이기는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계 20:4, 6, 계 21장, 22장).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어떠한 전통적인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라 성경을 믿는다(마 22:29, 벧전 2:6).
2. 우리는 살아 있는 반석이시요(마 16:18, 고전 10:4), 산돌이시며(마 21:42, 벧 2:4), 몸의 머리이시고(엡 1:21-23, 4:15, 5:23, 골 1:18, 2:10, 19), 교회의 생명과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하나 위에 선다(엡 4:4). 우리는 분파주의나 교파주의나 비교파주의나 초교파주의가 아니다(갈 5:20, 딤후 3:10, 벧후 2:1, 고전 11:19, 롬 16:17).
4.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이들의 하나 됨의 입장 위에 선다(마 16:18, 계 1:1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믿는이들이 각 도시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임을 인정한다(고전 1:2, 12:23-26).

우리의 사명

1.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행 20:24)과 천국 복음(마 4:23, 9:35, 26:13)을 전파한다.
2. 믿는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한다(벧전 2:2, 엡 4:14).
3. 믿는이들이 각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단체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각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행 8:1, 13:1, 20:17, 고전 1:2, 계 1:11, 2:1, 8, 12, 3:1, 7, 14, 행 15:41, 고전 16:1, 갈 1:2, 고전 16:19, 고후 8:1).
4. 믿는이들이 공급을 받아 생명이 자라고 성숙(히 5:12-14, 엡 4:13-14, 골 2:28, 4:12, 마 5:48, 히 6:1-2, 빌 3:12-15)할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 있고 풍성한 말씀을 해방한다(벧전 2:2, 고전 3:6, 엡 4:15, 골 2:19).

5.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신부가 예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엡 4:11-12, 16, 5:32, 요 3:29).

우리의 소망

1.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요 10:10)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자들이(엡 1:4, 벰전 1:20) 주 예수를 믿기를 소망한다.
2. 우리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지식의 증가가 아닌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기를 소망한다(고전 3:6, 7, 엡 4:15, 16, 골 1:6, 10, 2:19, 벰전 2:2, 벰후 3:18).
3. 우리는 모든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이상을 보고(행 9:4-5, 골 2:2, 엡 5:32, 1:17-23), 그들의 지방에 있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한다(롬 14:1-15:13, 마18:15-19).
4.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예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우리의 이기는 자들을 얻으시기를 소망한다 (계 2:7하, 11하, 26하, 3:5, 12, 21, 19:7).
5. 우리는 우리가 자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앞당겨지고, 우리가 축복된 휴가와 그분의 오는 왕국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계 11:15-19, 20:4, 6, 22:20).

회복에 관하여

지방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다. 우리의 간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미하는 '회복'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1.

'회복하다(recover)'라는 말은 잃어버렸던 어떤 것을 다시 얻거나, 어떤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recover)'은 손상 또는 손실이 발생한 후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하거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회복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 역사의 과정 중에서 그것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거나, 잘못 사용되었거나, 타락되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래의 상태나 지위로 복구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2.

교회는 수세기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 하락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 교회에 대한 우리 이상은 현재의 상황이나 전통적인 관습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말씀 안에 계시된 변함 없는 기준을 따른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신약의 계시를 단순한 역사적 과거 사실로 간주하지 않고, 현재 교회가 실천하여야 할 기준으로 간주한다.

3.

하나님의 회복은 20세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시작된 정확한 날짜를 정하긴 어렵지만, 편이상 종교 개혁이 일어난 때로 정한다. 회복은 종교 개혁 이후로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진젠도르프(Zinzendorf)의 인도 아래 보헤미아에서 교회 생활의 부분적인 회복이 있었고, 플리머스 형제회(Plymouth Brethren)를 통하여 성경의 귀한 진리들이 많이 밝혀졌으며, 그 후 속생명에 대한 참된 체험으로까지 전진했다. 지금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참된 지방 교회를 건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4.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체험하는 것,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만유로 누리는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의 실재를 회복하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협력하는데, 왜냐하면 실제적인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없이 부요한 분이시며(엡 3:8), 우리의 누림을 위한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라는 것을 간증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계시에 따른 교회 생활을 실행하도록 부담을 주셨음을 간증한다.

구원에 관하여

1.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위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다. 이러한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다 포함한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사람의 영은 거듭났고, 혼은 변화되고 있으며, 몸은 장차 변형될 것이다.

2.

구원받기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에 대한 살아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참되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같은 믿음'(딤후 1:4)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믿어야 함을 포함한다. 우리는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호흡하심)으로 된 완전하고도 신성한 계시라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유일하신 삼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과,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것과 하나님 우편으로 들어올려져 만유의 주가 되신 것과, 그분 자신을 위하여 다시 오셔서 이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어야 한다.

3.

영원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로마서, 갈라디아서).

4.

사람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접촉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강조한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5.

일단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안전을 둘 다 가질 수 있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1.

거듭남

(요 3:3-6, 벰전 1:3)

그리스도인 생활은 거듭남으로 시작된다.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서 성령으로 나는

것이요(요 3:6), 우리 영 안에 분배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요 3:16, 5:24, 벰후 1:4)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생명은 우리 영을 살아 있게 한다.

2.

분별

(롬 12:2, 고전 1:2, 2:13, 12:10)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합당하게 분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별은 형식적이고 사람이 만든 규율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의 생명과 본성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와 성령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분별된다.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분별된 위치를 지켜야 한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경건한 생활을 한다.

3.

헌신

(고전 6:19-20, 롬 14:8, 고후 5:14-15, 롬 12:1, 6:13-14, 19, 레 1:9, 민 28:2-3)

그리스도인 생활은 헌신의 생활이다.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것이며,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거나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 그분께 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속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께 헌신한다. 우리는 또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분께 속했음을 인정한다. 지방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산다.

4.

주님을 사랑함

(요 15:9, 10, 21:15-17, 계 2:4, 딤후 4:8, 롬 8:28, 마 22:37)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

한다. 다른 어떤 것 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갈망하신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랑스러운 분이심과, 그분이 우리 마음을 얻으셨음과,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을 간증한다.

5.
하나님의 말씀
(딤후 3:16)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방 교회 안에 있는 모든이들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심지어 1년에 1회씩은 성경을 통독하도록 격려받는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연구하고 영적 음식인 말씀을 기도로 취한다. 성령이 그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가르침과 영감과 인도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점검받아야 한다. 성경이 대단히 많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주로 교리의 책이라기보다 생명의 책이다. 우리는 다만 지식을 얻려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후 3:6), 충분한 기도를 통해 성경을 읽음으로써 살아 있는 말씀이신 주 예수 자신을 접촉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나온다(요 5:39, 6:63, 고후 3:6).

6.
기도
(엡 6:18, 빌 1:4, 살전 1:2, 5:17, 딤후 2:1)

그리스도인 생활은 또한 기도의 생활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달콤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교통을 누린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분께 복종하는 것과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과 협력하려는 우리의 갈망을 표명한다. 지방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날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격려받고 있다.

7.
그리스도를 체험함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그리스도인 생활이 사실상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자신임을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크

게 강조한다. 신약의 서신서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되시고(갈 1:12, 16), 우리 안에 사시며(빌 1:21),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고 계시며(요 8:29),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엡 3:17) 계시며, 우리 안에서 확대되시며(빌 1:20),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골 3:11). 밖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고(갈 2:20),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롬 8:11) 우리의 내적 존재를 점유하시도록 함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살며(엡 3:19),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 자신이 표현되시기를 추구한다(엡 3:10, 빌 1:20-21).

8.
십자가에 못박힌 생활
(갈 2:20)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을 좇는 데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에 의해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필요가 있다(마 16:24).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사람의 타락한 육신의 어떠한 것을 보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한다. 더구나 우리는 자아와 천연적인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을 보았다(롬 7:17, 20, 23, 마 16:23, 요 12:25).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의 부활 생명의 풍성함 안에서(빌 1:19, 3:10, 요 11:25) 그분에 의해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후 4:12).

9.
양육
(벧전 2:2, 딤후 4:6, 살전 2:7)

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로 매일 양육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요 6:48, 55) 강조한다. 그 영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 공급이신 그분을 누린다. 그분 자신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요 6:57)

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며, 하나님의 떡이시다.(요 6:33, 35, 51) 날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양육받는다.

10.

생명의 성장

(히 5:12-14, 엡 4:13-14, 골 2:28, 4:12, 마 5:48, 히 6:1-2, 빌 3:12-15, 벧전 2:2, 고전 3:6, 엡 4:15, 골 2:19)

지방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생명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생명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발육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추구한다. 우리는 주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며, 그분의 대적을 패배시키기 위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

11.

인간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극단적이지 않고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한다. 우리는 우리 영과 혼과 몸의 전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존되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의 인성을 표현하기를 추구하고, 가정, 학교, 이웃, 직장 등, 인간 생활의 모든 행함속에서 그분의 귀한 간증을 잃어지지 원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생활은 날마다의 인간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더 진실된 사람이 되고, 예수의 높여지고 변화된 인성을 더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2.

그 영

(롬 8장, 갈 5장)

그리스도인 생활은 그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그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존재가 그 영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두고(롬 8:11), 몸의 행실을 죽음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롬 8:6, 13).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뤄진다. 오직 영 안에 살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만 성경에 계시된 신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실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영을 알아야 하고, 그 영 안에 살아야 하며,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갈 5:24).

13.

변화

(롬 12:2, 고후 3:17-18)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거듭남과 몸의 변형을 알고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인 혼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마음(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 12:2)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내적인 역사로 인해 우리 혼이 성질상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변화될 때 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요소로 충만할 때 우리 혼은 순수케 되고 거룩케 된다. 그럴 때 우리 혼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사시는 주님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혼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러한 혼의 변화는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치상으로 거룩해질 뿐 아니라 성질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소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역사와 적극적으로는 생명의 영의 역사가 필요하다.

14.

변형

(빌 3:21, 롬 8:30)

끝으로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체험의 절정에서 우리 몸은 변형되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몸의 구속, 아들의 명분을 이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생활은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변화를 거쳐 몸의 변형으로 완성된다.

교회 생활에 관하여

1. 단체 생활

본성상 그리스도인 생활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부터 살아 내는 것으로서 단체 생활이다. 신약에 있는 많은 표현들이 이것을 확증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 있는 양들이며(요 10), 하나님의 건축의 산 돌들이며(벧전 2:5-9),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며(요 15),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롬 12, 고전 12)이다. 비록 우리가 개인으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개인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 즉 자신의 흥미, 자신의 활동, 자신의 목표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하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교회의 건축을 관심하는 단체적인 생활을하기를 갈망하신다(엡 4:11-12).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회복을 체험하고 있다.

2.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몸이고, 그분은 그 몸의 유일한 머리이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탈취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모독하는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인도 직분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에는 영구적이고, 공식적이며, 조직적인 인도 직분이 없다. 더 나아가 계급이 없다. 오히려 몸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와 직접 교통을 하며, 생활과 행동에 관한 모든 지시를 그분으로부터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몸의 지체들 사이의 어떤 중개자나 중간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엡 1:20-23).

3. 교통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존중하긴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을 누린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개인적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도리어 우리는 몸의 지체들 사이의 교통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순환되는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는지! 우리는 이 흐름, 이 교통이 축복된 실제임을 간증한다(고후 13:13, 요일 1:1-10).

4. 하나 됨

교회 생활에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중점은 하나를 지키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에 주님은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그분을 믿는이들도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한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이들로, '하나'의 입장 위에 세워진 지방 교회들로 표현된다. 우리는 '하나'를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분열을 거부하고 미워해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분열된 상태는 주님의 간증에 어떠한 부끄러움이며 비난거리인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를 위해서 있다.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입장 위에 믿는이로서 모이며, 같은 믿음을 따라 모든 믿는이들을 받으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추구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로 온전케 된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가 땅에서 응답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로 온전케 될 때 세상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고 알게 될 것임을 믿는다(요 17:11, 21-23, 엡 4:1-6, 고전 10:16-17, 12:13, 12:24-27, 롬 12:4-5).

5. 서로 돌아봄

교회 생활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의 믿는이들을 실제적으로 돌본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며(갈 6:2, 롬 14:19), 손님들을 접대하고(롬 12:13, 히 13:2, 벧전 4:9), 교통을 위해 가정을 열며(행 2:2, 2:46, 16:3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애정어린 봉사를 통해 형제 자매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기꺼이 채운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시원케 하며, 서로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며, 서로를 건축한다(히 10:24). 우리의 교회 생활은 집회 장소에서의 모임에만 제한되지 않고 항상 계속된다.

6. 양심(행 23:1, 24:16, 롬 2:15, 9:1-2, 고전 8:7, 10, 12, 고후 1:12, 4:2, 5:11, 딤펢전 1:5, 19, 3:9, 4:2, 딤펢후 1:3, 히 9:9, 9:14, 10:22, 13:18, 벧전 3:16, 21)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존중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그들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빛 안에서 주님을 따를 자유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일상 생활에 대한 어떤 외적 통제 형식이나 조종이 없으며, 우리의 양심을 무시하는 권위자도 없다. 어떤 강압이나 지배도 없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견지에서 자신의 양심을 철저히 처리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거리낌 없는 양심을 유지하도록 격려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주의한다.

7. 집회

교회 생활은 모이는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서너 번 집회를 갖는다. 우리에게 집회는 노동이 아니라 누림이다. 교회 집회에서 우리는 공급 받고 가르침 받으며, 강건케 되고, 격려 받으며, 빛 비춤 받으며, 영감을 얻고, 장비되며, 주님께 위임을 받는다. 합당한 교회 생활에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생활과 단체적인 집회 생활이 균형 잡혀 있다. 주님과 개인의 개인적인 시간이 집회를 대치할 수 없고 집회가 개인적인 시간을 대치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기를 즐거워 하며 또한 더욱 단체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누린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집회에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모일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고전 14장).

8. 모든 지체들의 기능

교회 생활 안에서 몸의 모든 지체들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모두에게 기능이 있으며, 각 지체의 기능이 존중된다. 성직자-평신도 제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계 2:6, 15), 우리는

이것을 거절한다. 지방 교회 안에는 성직자도 없고 평신도도 없다. 우리는 다만 몸의 지체들이며, 자신의 분량을 따라 기능을 발휘할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서 목사도 없고(조직적인 목사와 그 제도는 없음, 그러나 목자는 은사로 있음), 청소부도 없다. 모든 성도들이 집회에서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 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전 12장, 14장).

지방 교회에 대한 몇 가지 문답

1.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방 교회는 이름을 갖지 않는다. 우리가 믿고 존귀하게 여기는 유일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다른 이름을 취하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지방 교회」라는 용어는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적인 성격과 교회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서, 지방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이다. 「지방 교회(local church)」라는 (영어) 단어를 대문자로 쓰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우리의 이름이 「지방교회」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달이 어느 지방에서 보이든 다만 달이듯이, 교회도 어느 지방에 세워졌든 다만 교회이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것은 다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알려졌으며(행 8:1), 안디옥에 세워졌을 때도 다만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다(행 13:1). 이와 같이 오늘날 아나하임에 있는 교회의 실질적인 표현은 다만 아나하임에 있는 교회이다. 지방 교회로서 우리는 참 하나의 입장 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2. 여러분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서 공식적이며, 영구적이며, 조직적인 사람의 인도 직분이 없다. 더욱이 우리에게서 어떤 종류의 계급도 없으며, 세계를 총괄하는 인도자도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않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가르침과 실행이 하나

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는 사람만을 따른다. 인도하는 사람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목양한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살아 있는 말씀을 사역함으로 그들을 섬긴다.

3. 여러분의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각각의 지방 교회들은 행정상 독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앙 본부가 없다. 어떤 특정한 지방 교회도 머리 되는 교회 또는 인도하는 교회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모든 지방 교회들은 주님 앞에서 동일한 위치를 갖는다.

4. 여러분은 집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며, 말씀을 공급한다. 매주일 우리는 만찬을 갖는데, 주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와서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다. 교회 집회는 열려 있으며, 모든 믿는 이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5. 「기도로 말씀 읽기」란 무엇입니까?

「기도로 말씀 읽기(pray-reading)」라는 용어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실행을 묘사하는 복합어이다. 우리는 말씀 안에 포함된 생명의 요소를 누리기 위해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누린다. 수년 간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교정 받고, 강건케 되며, 영감을 얻는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기도로 읽고, 성경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은 성경을 정규적으로 읽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연구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6.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용어는 오늘날 몇몇 사람들에게 거슬리는데, 이는 마치 주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그랬던 것과 같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양이시며 생명나무이시다. 그분에 의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양이시며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의 생수이시다. 그분을 마실 때 우리는 만족한다. 그러므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요 음료인 말씀을 통해 영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7. 「하나님의 경륜(The Economy of God)」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륜(economy)」이라는 단어는 「가정 행정」을 의미하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왔다. 그 단어는 또한 청지기 직분, 행정, 분배의 의미를 포함하는데, 즉 분배의 과정을 의미한다.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빛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행정을 가리킨다.

8. 여러분은 삼위일체에 관해 삼위 양식론을 믿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삼위 양식론은 이단이다. 삼위 양식론은 신격의 셋,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동시 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그 셋은 다만 신성한 본질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 안의 셋이며 셋 안의 하나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신격 안에서의 영원한 구분은 물론 인정한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관한 우리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본성을 교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데에 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교리의 정통성은 우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로 결정되어야 한다. 삼일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신앙을 성경의 빛 안에서

공정하게 고려한다면, 우리가 삼위 양식론이나 삼신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른 삼일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믿고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9. 여러분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진화된다고 가르칩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이러한 비난은 완전히 거짓이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고 계시며, 믿는이들은 하나님의 요소로 변화되고, 적셔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격(Godhead)으로 진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10. 여러분은 사람의 몸 안에 사탄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사람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 타락했을 때, 죄 곧 사탄의 본성은 사람의 몸 안에 주입되었고, 사람의 몸은 육체로 변질되었다. 타락은 단순히 외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존재를 내적으로 중독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이었다.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에 의하면, 죄는 우리 지체 안에서 실질적인 사탄의 인격으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사탄이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사람을 떠나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성경은 타락한 사람이 마귀의 자녀이며, 마귀는 그들의 아버지임을 계시한다(요일 3:10, 요 8:44).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탄의 생명과 본성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 안에 사탄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사탄이 죄의 형태로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

11. 「훈련」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일년에 두번씩 십 일(현재는 칠 일) 동안의 훈련이 아니라 하임에서 열린다. 각 훈련의 내용은 성경의 각 권이나 일부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12. 지방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각 지방 교회는 그 지방 지체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유지된다. 지방 교회의 재정 관리는 그 교회의 행정 아래에 있다. 다른 교회에 대하여는 재정적인 책임이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행정 업무와 마찬가지로 지방 교회들은 독립적이며, 지방적으로 관리된다. 우리는 지체들이 주님께 받은 위임에 따라 자랑하지 않고 은밀하게 드릴 것을 장려한다. 집회 중에 헌금을 걷지 않으며 재정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는다. 수입 지출 내역서는 지체들이 검토할 수 있다. 재정 문제에 관한한, 지방 교회들은 비영리 종교 단체로 정부에 합당하게 등록되어 있다.

13.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지방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고 믿거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천주교와 교파와 독립된 단체들 안에도 피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거듭난 참된 믿는이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그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는다. 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의 모든 집회에 올 수 있으며, 특히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간증하는 만찬집회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 비록 양심을 위하여 우리가 조직적인 종교에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 신실함으로 우리는 주의 간증을 위해 교회의 유일한 입장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좁고, 배타적이고, 분열적인 영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우리는 온 몸을 위하여 우리의 위치를 취한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모든 믿는이들을 받는다.

14.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인간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양심을 인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의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국가와 도(道)와 지역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정부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